

[문화현장분석: 영화보기(4)] 반지의 제왕 - 두개의 탑 "

하나님 없는 모든 영계의 혼합, 뉴에이지적 메시지

◇영화 반지의 제왕-두개의 탑은

판타지 소설의 창시자인 톨킨의 소설을 영화화 한 두번째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5백만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판타지'소설의 창시자이자인 J. R. R. 톨킨의 3부작 소설을 영화화 한 두 번째 작품으로, 벌써 우리 나라에서 500만의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미 전 세계 1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책으로 읽혀졌으며, Time이 선정한 20세기 영미 문학 10대 걸작에도 들어가는 문학 작품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절대반지'는 악의 군주 사우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모든 힘의 상징이며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걸려있는 반지이다. 그 반지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반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불의 산'의 용암 속에 그것을 던져 넣으려 9명으로 이루어진 반지원정대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행 중 우여곡절로 인해 세 팀으로 흩어진 원정대... . 호빗족의 프로도와 샘은 일행과 떨어져 불의 산으로 모험을 떠나고, 사우론의 부하군대에게 잡혀간 메리와 피핀은 트리비어드라는 엔트족에게 구출 받게 된다. 한편 그들을 구하기 위해 추격하던 아라곤과 나머지 원정대들은 마법사 간달프를 통해 악의 군주 사우론이 암흑세계의 두 개의 탑을 통합하여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이에 아라곤과 나머지 원정대는 중간대륙의 선한 무리의 통합을 이뤄 사우론의 강력한 세력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2부까지 내용이다.

이 영화는 인간족 외에 엘프(요정)족, 드워프(난장이)족, 호빗족, 트롤(괴물)족, 엔트족(숲의 정령) 등 여러 영적 존재들이 함께 등장한다.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 이들은 서로 연합하며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다. 특히, 절대반지에 대해 가장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닌 호빗족 출신의 청년이다.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전편엔 온갖 영계에 속한 족속들이 인간과 혼합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간계 라는 세상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협력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모든 세계가 하나되어 악을 물리친다.

여기서 우리는 영계까지 포함한 전세계의 하나됨의 메시지(New World Order)를 읽을 수 있다. 영화 내용 중 인간족 아라곤은 요정족 여자와 사랑에 빠지며, 간달프 라는 마법사는 죽음에서 환생을 하여 회색 마법사에서 백색 마법사로 더 고차원적 영적 진화를 하고 있다. 판타지를 통한 뉴에이지적 메시지가 영화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영적 진화론, 범신론 사상, 신과 인간의 사랑(사실상 접신이다.) 마법사의 마법과 환생 등등...

말씀으로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말과 글은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해리 포터를 비롯한 모든 마법과 판타지소설의 아버지인 톨킨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천주교인으로 옥스퍼드 출신의 언어학자요 고대 문헌학자였던 그는 언약 밖의 눈으로 전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연구하여 집필했으며, 지금까지 많은 지식인들의 영적 사상계와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다. 50년이 지난 현재 '영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전세계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한 톨킨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서, 정확한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을 파악한 영적 엘리트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를 보게 된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가지고 올바른 눈으로 인간을 보고, 역사를 보며, 성경을 보는, 시대를 살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인 것이다.